

디자인진흥원사

- 제1회 《한국우수포장대전》
(1971년 시작된 《한국포장대전》
개칭) 개최
- 정보자료부 신설(전산실 준공)
- 컴퓨터 응용디자인 교육 실시

한국 디자인사

- 금성사 디자인연구소
김철호 소장 취임
- 『시각디자인』 창간
- 서울올림픽 문화포스터 발표
- 국내 최초 애플 전용 게임
<신검의 전설> 발표
- 한국프라즘, 탠덤디자인 설립

한국 사회사

-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6월 민주항쟁
- 6·29선언
- 저작권법 개정
-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통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디자인 정보화

KIDP가 추진해온 디자인 정보 서비스의 시작은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해 11월 디자인 분야 자료 2,127종, 포장 분야 447종, 기타 슬라이드 등 1만 7,667점을 비롯해 디자인·포장 관련 도서 3,351권, 잡지 5,884권의 자료를 구비한 **자료실**이 문을 열었다. 디자인 포장 분야의 발전을 위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가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며 가장 최신의,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단순한 자료실 운영을 넘어 정식으로 정보 자료 부서가 생기고 전산실이 준공된 것은 1987년의 일이다. 1980년대를 지나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한 물리적 정보 뿐 아니라 디지털 정보의 축적 또한 중요해짐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정보 형태 및 구조, 운영 방법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기반이 조성되고 도서 자료에 대한 검색 시스템을 갖추어 정보 제공이 수월해졌다. 특히 1988년부터 1989년까지 검색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전산화했으며, 국내 공중정보통신망 ‘데이콤네트’와 연결해 자료망을 이용한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였다. 1980년대 말에는 이렇게 구축하

기 시작한 디지털 자료를 비롯해 디자인·포장 관련 도서 7,000여 권, 정기간행물 또한 221종을 보유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상자료실을 개설해 각종 슬라이드를 비롯한 비디오테이프, 디지털화된 논문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1997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 역시 **산업디자인 정보화 프로젝트**(Multimedia Industrial Design Aid System, MIDAS, 이하 마이다스프로젝트) 5개년 계획이었다. ‘산업디자인 관련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한 후 통신망을 통해 기업체와 디자이너 등, 정보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디자인 신산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해외 디자인 마케팅을 간접 지원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산업디자인 정보 시스템 구축’이 목적으로, 1990년대 말 정보통신 기술이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급한 과제로 판단한 것이다. 1997년 첫째 ‘기본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디자인 정보기반 확대’, ‘디자인 정보화 정착 및 정보화 DB 지원 체제 확립’, ‘디자인 정보센터 운영’, ‘글로벌 디자인 네트워크 완성’까지 총 5년간 마이다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궁극적인 목적은 디자이너들이 디지털 환경과 인터넷 기술 기반을 통해 얻은 기술 정보를 디자인 정보 서비스로 개발,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디자인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주었다.

1998년 KIDP 홈페이지(www.kidp.or.kr)가 정식 오픈하였고, 2000년 5월 개설된 **디자인디비닷컴**(designdb.com)은 마이다스 프로젝트의 추진 목적을 잘 보여주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디비닷컴은 최신 디자인 트렌드는 물론 연구 보고서, 기업·디자이너·학교 등 각종 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업계 소식이나 디자인 종사자를 위한 정보 교류까지,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2019년 기준 회원 38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디자인 전문 포털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AI, 챗봇 등이 구현된 디자인디비닷컴을 만날 수 있다.